

인사 앞두고 말 아끼는 주지스님들

조계종 총무원이 시행한 사찰 주지인사평가를 두고서는 찬반 이견이 많다. 한 스님은 "인사고과제도는 제대로만 활용한다면 주지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스님도 "특별한 기준도 없이 제 역할을 못하는 사람에게는도 주지 인사가 이뤄지거나, 주지역을 잘 맡아 하는 경우에도 많았다"며 "주지 소임을 잘 맡아온 스님에 대한 예우를 통해 주지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한 스님은 "평가 기준 항목이 추상적"이라며 반발했다. 스님은 "평가항목 중 신도수가 몇 명인지 뭐 그리 중요하냐. 각 사찰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총무행정 특성이 다르다. 이를 계층화해 일방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연 기자

800점 아래 재임 못한다

조계종, 교계 최초 사찰 주지 인사평가 시행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이 종단 최초로 사찰 주지 인사평가를 시행했다.

조계종 직할교구(교구장 자승)는 7월 15일 하반기 공할 주지 임기 만료 예정 사찰을 대상으로 제1회 인사평가 심의위원회를 실시해 추후 주지 인사에 공정성과 효율성을 더해 나갈 방침이다.

위원회 위원은 직할교구장인 총무원장 자승 스님, 총무부장 영담 스님, 재무부장 상운 스님, 포교부장 계성 스님, 도진 스님, 수불 스님이다. 심의위원회는 분기별로 4차례 실시하고 누적점수를 바탕으로 교구장인 총무원장이 사찰 주지를 최종 임명하게 된다.

이번에 평가 대상이 된 사찰은 주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서울 중계본동 화도암(주지 법보), 동소문동 청룡암(주지 부경), 정릉3동 경국사(주지 종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봉곡사(주지 지철) 4곳이다. 직할교구는 인사고과 대상인 직할교구 공할 45 곳을 시작으로 점차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초로 시행된 인사고과제도는 총무행정, 포교 복지, 재정, 불사, 심의

위원회 의견 등 5가지 평가항목에 따른 20개의 세부항목이 평가 기준이 된다.

평가를 위해서 직할교구는 인사평가에 기초자료로 총무원 서식에 따라 법회 실시 여부, 참석인원, 법회 주제 등의 '법회현황 보고'를 매달 제출하도록 했다. 직할교구사무처에서는 법회현황 보고서의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사를 통해 평가를 실시한다.

인사평가 총 점수는 1000점이다. 이중 포교·복지가 330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뒤 포교와 복지 역할에 대한 요구를 반영했다. 포교·복지활동 평가 세부사항은 신규 신도등록 인원, 신도 교무금 재납부 현황, 법회 참석인원 및 현황, 신도회 구성 여부, 신도교육 및 상담, 포교인력배치 및 예산 운영, 템플스테이 운영실적, 복지사업 현황 등이다.

재정은 270점 만점으로 예산 및 결산액 증감, 분담금 납부, 신규재산취득 및 사찰명 등기 이전 등을 평가한다. 총무행정으로 200점, 불사 100점, 심의위원회 의견 100점으로 항목별 점수를 나눴다.

평가에는 감점 사항도 포함됐다. 화재, 성보관리 미흡 및 소실, 템플스

테이 운영사찰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을 중단하거나 해지된 사찰에는 최대 100점까지 감점한다.

이렇게 평가된 점수에 따라 갑(950점 이상), 을(949~800점), 병(799~600점), 정(599~400점), 무(399이하)로 등급을 나누게 되며, 800점 이상인 '을' 등급의 주지 이상만 재임 자격이 주어진다. 직할교구 인사평가는 주지 임기 만료 3개월 전 공할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사실사명에 대해서는 직할교구 시행 이후 확대해 나간다.

자신의 평가 등급은 임기 만료 2개월 전 임명 여부에 따라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점수를 원할 시에는 본인에게만 점수를 공개한다.

직할교구사무처 류창무 사무부장은 "하반기 중에는 공할의 '법회현황 보고' 제도 운영, 정기 인사평가 매년 시행해 평가 내용을 누적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 사무부장은 "인사고과제도를 통해 주지 스님이 역할을 최대한 발휘해 침체된 수도권 포교와 복지에 힘쓰도록 하고 종도들의 신뢰 및 공정성 확립에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연 기자 un82@buddhapia.com

제언

'아젠다' 창조하는 불교여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아젠다란, 공공정책으로 전환되기 위하여 정책 결정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의의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문제나 이슈, 곧 의제들의 목록을 말한다.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지만, 한 사회 구성원들의 삶에 크던 작던 영향을 미치는 일을 보통 사회적 아젠다라고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요즘 불교계의 핵심 화두들은 우리 한국사회 전체의 삶과 관련한 중요한 사회적 아젠다라고 할만하다.

강제적인 문화재관람료 징수로 빚어지는 시민사회와의 갈등은 논란이 될지 오래 되었다.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이 불러일으킨 자연환경 파괴와 문화재 훼손 논란은 급기야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까지 불러왔다. 또한 올 상반기를 뜨겁게 달구었던 봉은사 사태 또한 직역사찰 지정이라는 종단 내의 사안이었지만 이를 통해 폭로된 정치권의 외압은 정교분리라는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공공의 의제가 되기에 충분했다.

가장 최근의 일로, 지난 7월 14, 15일자 중앙일간지에 템플스테이 국고지원에 대한 일부 타종교의 불편한 시각을 공개적으로 표출한 신문광고가 실렸던 점이다. 일부 기독교단체 명의의 '종교

비하고 설득할 태세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조계종 33대 집행부는 '소통'을 강조했다. 소통의 근간은 대화와 설득이다. 그러나 근간의 불교계 위기 상황을 볼 때 대화와 설득은 찾기 힘들다. 불교 내부적으로 종도들과, 불교 외부적으로는 일반 국민들과 대화하고 설득하는데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화쟁위원회'로는 부족하다. 근본적으로 시민사회의 관심이 높은 아젠다에 대해 설득력을 갖춰 나가는 자기 논리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불교문화재와 관련해 왜 국고지원이 있는 것인지, 전체 문화재 가운데 불교문화재의 비율과 문화재 보호를 위해 불교가 기울인 노력이 충분히 알려져야 한다. 또 불교가 가꾸고 보존해온 사찰림을 정부가 강제로 국립공원에 편입시킨 과정과 이로 인해 받아야 하는 불교계의 피해상황이 국민적 공감을 얻도록 해야 한다. 더 적극적으로 관료료라는 이름으로 시민사회와 갈등을 빚을 것이 아니라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보편적 문화향유권을 위해 문화재 유지보수에 관련한 제 비용을 국고도 부담하는 방안을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추진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만하다.

아젠다에 대한 불교의 대응은 낙제점 핵심 의제에 대한 전문 연구기관 필요

계는 국민혈세로 종단운영행위를 중단하라'는 광고를 통해 불교계가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는 문화재 보수예산과 템플스테이 예산이 '부적절한 중정유착'으로 보인다는 어처구니없는 비난을 자행한 것이다. 이 일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훼손·종교편향의 연장선에 있으며 종교 신앙의 자유와 정면 충돌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으로는 불교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아젠다가 아닐 수 없다.

이 문제의 심각성은 종교간 갈등을 조장하려는 일부 불운한 정치세력의 뒷배경이 의심스러운데 있다. 바로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과 맞물려 수천명의 스님들이 서명에 동참하여 4대강 사업을 전면 재고하라는 목소리가 표출되던 시기에 뜬금없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아젠다에 대해 불교는 어떻게 대응해 왔는가. 아쉽게도 낙제점이다. 조계종단이 2010년 상반기를 결산하며 스스로 자인한 것처럼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하다. 아니, 부족정도가 아니라 졸속에 뒷배이다. 막상 일이 닥쳐서야 허둥지둥 대응하는 졸속처리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시기를 놓쳐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뒷배도 참 썩볼 견인 것만은 분명하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앞서나가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불교의 중장기적 비전과 관련한 주제들에 대해서는 평소 준

막연히 국민들이 불교를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알아야 이해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공감하지 않을까?

더 이상 주먹구구식으로, 로비에나 의존하는 구태의연한 방식은 탈피하여야 하지 않을까. 이 방식은 봉은사 사태가 촉발된 대정부 정책협의(?)에서 그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 있다. 음성적 로비는 정부예산 지원을 함묵적성이나 필요 시급성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치적 고려에 따른 자의적 배분과 집행이 생겨날 여지를 만든다. 따라서 꼭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한다.

불교의 핵심 의제들에 대한 설득력있는 근거를 조직적,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전문 연구기관이 필요하다. 개신교의 억지성 주장에는 공세적 대응과 구체적인 논리로 대응할 수 있어야 국민대중의 공감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이와 더불어 불교정책에 대한 비평 감시 역할도 병행되어야 한다.

생태, 생명, 환경, 문화, 통일, 자비 등등 종교를 떠나 온 국민의 동의와 지원을 얻을 수 있는 아젠다를 불교계가 능동적으로 개발하고 앞서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작업을 담당할 주체를 종단만이 아니라 온 불교계가 함께 건설해야 한다.

김경호 동화작가

“교류·협력의 문 열어라” “불교계에 심려 끼쳐 죄송”

통일부, 종교인 등 대북 교류 차단

안상수 의원, 자승 스님 예방

정부가 당초 약속과 달리 종교인들의 대북 지원 교류를 차단해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5대 종단 대표들의 모임인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이하 종교인 모임)은 7월 19일 "통일부가 당초 약속과 달리 30여 종교인 방문을 불허하고, 3~4명 또는 5~6명의 실무자들이 참가를 신청하고 판문점을 건너가서 내려놓고 오라고 했다"고 밝혔다.

종교인 30여 명은 7월 15일 밀가루 300톤을 개성 주변 취약지역 6곳의 주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남북해당기관과 협의 추진해 왔다. 5·24 남북조치 이후 대북 인도적 지원 물자가 육로로 복속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종교인들은 인도적 지원사업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정부 부처의 반대 그 뜻이 좌절됐다.

통일부는 9일 종교인 모임에게 개성 방문일정을 내부조율을 위해 26일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책임지고 협력하겠다"고 말했지만 16일 돌연 "3~4여 실무자들만 방북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종교인 모임은 19일 '종교인의 대북인도적 교류와 협력의 문 열어달라'는 제하의 성명서에서 "종교인들의 방북이 위협스럽게 보였던 것 같다"며 "남북 교류와 협의를 정부 당국자들만의 전유물로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인들은 "식량 지원을 통해 북한 동포들과 나누는 일이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이상연 기자

안상수 한나라당 새 대표와 임태희 신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홍상표 신임 청와대 홍보수석 등 정부와 한나라당 지도부가 자승 스님을 잇따라 예방했다.



7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만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안상수 한나라당 새 대표는 7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부탁의 소치로 불교계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앞으로 불교 발전하라는 가르침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강물이 흘러 바다로 가는 것이니 (사과를) 받아

들이겠다"고 말해 안상수 대표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같은 날, 임태희 비서실장과 홍상표 홍보수석도 자승 스님을 예방했다.

글 = 조동섭 · 이상연 기자
사진 = 박재완 기자

도서출판 탐구사 전화 02) 702-3557 팩스 02) 702-3558 구입처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예스 24, 운주사, 주요 불교서점

성암선서 4
대이단(大疑團)의 타파, 무방범(無防犯)의 방범법
- 화두선과 목조선의 요체
성암선사(聖巖禪師) 말씀 / 대성(大成) 옮김 416쪽 / 18,000원

수행 불자들의 필독서 - 성암선서 시리즈!

1. 마음의 노래 - 우두법용 선사의 '심명, 강해, 320쪽 / 15,000원
2.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 '산심경, '참동계, '보경삼매가', 강해, 288쪽 / 12,000원
3. 지혜의 검 - '중도가, '반야심경, 강해, 320쪽 / 13,500원
5. 선의 지혜 - 불교에 관한 문답 (근간)

*성암선서는 계속 출간됩니다.

한국불교가 몰랐던 중국(대만) 선불교의 진수!

중국에서는 선종의 맥이 끊어졌고 선종의 정통은 한국에 있다고 믿는 것은 한국 불교도들의 근거 없는 신화였다.

대만을 중심으로 일약 부흥하는 중국선의 중심인물 성암선사, 침체에 빠진 한국선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성암선사의 법문집 시리즈 제4탄!

이 책의 주된 내용

- 화두와 목조에 착수하기 전의 예비 수행에 관한 참신한 안내
- 간명히 정리된 화두선 3단계와 처음 소개되는 목조선 3단계
- 선 수행자들과 선 수행 지도법사가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의 설명
- 감산력경, 황룡오신, 대혜종교, 평지정각 선사의 법어에 대한 깊이 있는 주석

성암선사(聖巖禪師, 1930-2009)
• 동서양을 넘나들며 중국선(Chan)을 세계에 알린 대만불교의 중흥조
• 계·정·혜 삼학을 두루 겸비하고 선풍을 드날린 당대 최고의 고승